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 상상력

도시와 인간

시설

광주·전남 상생 가능성 보여준 시·도협의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5년여 만에 첫 만남을 갖고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MB 정부 들어 심화된 정치·경제적 소외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상황에서 양 시·도가 힘을 합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양 시·도는 10일 민선 5기 첫 광역행정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광주와 전남 간에 주창이 었었던 광주공항 이전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들을 타결했다. 우선 광주공항 국내선은 존치하되 무안공항은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 지지,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영산강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등에 양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한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 서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교총 간 '감정적 갈등'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이 파견기간이 10개월여 남은 광주교총 회장에 대해 파견을 전격 취소하고 교단으로 복귀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교총은 송길화 회장이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장이 전교조 이념 실현의 장이 되고 있다"며 비판한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교사 출신인 송 회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파견 인사발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일선학교로 복귀할 경우 담임이나 수업 등을 맡을 수밖에 없어 회장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교육청은 "교사 파견에 대한 법적 인 명분이 불분명한데다 현재 파견 인사는 인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無等鼓

범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목격자다. 범행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는 범행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물인 탓이다. 범인을 압박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나는 네가~한 일을 알고 있다'는 말은 지난 1997년 발표된 공포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에서 유래했다.

영화는 어느 여름 밤 해변에서 데이트를 즐긴 후 귀가하던 10대 한쌍이 음주 운전으로 행인을 치면서 시작된다. 당황한 이들은 목격자가 없다고 판단해 사체를 유기하고 일상에 복귀하지만 1년 후부터 영화 제목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살해 위협과 함께 공포에 질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해리스 포드가 주연한 1986년작 '위트니스(Witness)'도 목격자에 관한 영화다. 형사역의 해리스 포드가 살인현장을 목격한 모자(母子)를 보호하고 범인과 대립하는 과정을 그린 스릴러영화인데 범행현장을 목격한 8살난 사무엘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16세 소년인 금붕어가 유일한 목격자라며 어항 속에 거주·캐첩·매운 소스와 양념들을 쏟아부어 독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년은 절도 외에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황당한 사건이지만 목격자를 두려워하는 범인들의 심리를 잘 보여준 듯 하다.

장필수 사회부처장 bungy@kwangju.co.kr



강말실

“생명은 그 무엇이라도 이미 그 자체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그를 닮은 새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있어야 하는 간절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큰오색따따구리의 육아일기'를 쓴 저자 김성호의 말이다.

“생명은 그 무엇이라도 이미 그 자체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그를

새들의 육아일기

젊은 새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있어야 하는 간절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4월 어느 날 큰오색따따구리의 육아일기"를 쓴 저자 김성호의 말이다.

이 책은 4월 어느 날 큰오색따따구리가 새끼를 낳기 위해 동지를 짓는 일부터 시작해 새끼를 낳고 키워내기까지 50일 동안의 기록을 담았다.

매서운 하얀배새매 앞에서 늘 도망가기 바빴던 수컷이 새끼를 낳으려 하는 때 앞에서는 그 자그마한 몸으로 목숨을 걸고 맞서던 장편,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 벌레를 물어왔지만 본체만체 가버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함참을 물고 있던 남편, 호기심 많은 심대 큰오색따따구리가 아저씨가 들락거리는 동지가 궁급해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들여다보다가 난생 처음 보는 새끼들의 이상한 모습에 기겁을 하고 도망치던 모습. 때론 나를 감동으로 몰아넣고 때론 웃을 짓게 만드는가 하면 때론 그네들의 지혜에 무릎을 치게 하던 사연들이 이어지다 끝내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목을 만났다.

새끼 두 마리가 다 자라 첫째가 집을 떠난 다음날, 둘째까지 집을 떠나버린 사실을 모른 채 아빠는 둘째에게 주려고 오늘따라 유난히 부리 가득 먹이를 몰고 왔다. 그러나 동지가 빈 걸 알고 깜짝 놀라 무려 4시간이 넘도록 동지가 있는 미루나무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둘째를 찾는다.

결국 체념하고 나무 꼭대기에 내려앉은 아빠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표표히 나무를 떠났다. 부리에는 아직도 4시간 전에 몰고 왔던 먹이를 그대로 문 채.

아아, 어떤 영상이 문자로 씌어진 이 기록의 감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글이 갖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책이다. 그 뒤 김성호 교수의 또 다른 자연관찰일기 '동고비와 함께한 80일'이 출간되어 반갑게 읽었다.

동고비 한 쌍이 지난해 따따구리 새끼들이 자랐던 커다란 빈 동지를 찾아내, 부리로 진흙을 퍼 날라 한 달여 만에 토담집으로 개조한다. 그곳에 여덟 마리의 새끼를 낳고 그네들을 키우기 위해 엄마, 아빠가 두 달 가까이 하루에 무려 240번 이상 먹이를 구해 먹이는 모습들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 생생하다.

아파트생활 십여 년 만에 강화와말골로 들어와 산 지 벌써 삼 년째이다. 세상은 미래를 담보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들이 난무하지만, 이곳 외딴골 사람들은 흠이 넘치게 주는 소산물을 혼자 다 먹지 못해 그때때 함께 나누며 먹고 산다.

세상은 강과 산을 그대로 놔두지 못해 끝없이 부수고 없애버리지만 이곳 외딴골의 물론 눈에는 흰뺨검둥오리들이 짝을 지어 한가로운 먹이를 찾고 있다.

(사계절출판사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이원재

인사말 중에 최고를 들리면 "건강하십니까?"를 꼽는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인들의 인사말은 Say?(세이-너 말할 수 있느냐)였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목이 달아나는 시대의 인사말이었다. 우리가 70년대의 인사말은 "진지 잡수셨습니까?"였다. 하도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 날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도 무서운 질병들이 많아 어찌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관리에 모든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자기

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신적 건강이다. 혼은 마음 목숨 생명이라고도 한다. 마음의 장소를 철학자들과 동양학자들은 심장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21세기 과학에는 뇌에 있다고 한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다. 마음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파멸과 영생으로 바뀐다. 창조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정신건강이 좋아야 육체의 건강도 유

기고



안기석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6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지방자치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은 일반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시기에는 노동운동, 통일운동, 경제정의실현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운동 조직과 단체들이 형성되어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민운동으로 다양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하였다.

누누였다. 또 178건의 민원을 접수, 159건을 처리하여 민원인들로부터 75.4%로 높은 수준의 시민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시 공직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정책워크숍을 4개월간 개최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지난해 개최된 워크숍은 보수, 진보, 여성단체 등 82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통과 협치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중앙 정치와 정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사회는 내부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진보,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고 정책 사안마다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보수와 진보세력으로 극명하게 양분되어 소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이 지방예산 순기에 맞게 9월 이전에 도출되어 이듬해 예산에 반영되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올해 추진하게 될 민·관 합동 워크숍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예산 편성 전에 중요하고 도출된 창조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보수, 진보, 여성연합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올해는 신묘년 토끼의 해다. 토끼는 귀토실화에서 담대하고 영특하며 지혜가 있는 동물로 비추어 지고 있다. 시장이 행복할 창조도시 꿈을 안고 웅비의 날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우수한 머리와 지혜를 모아 광주공동체 형성을 위해 힘을 모아 가기를 기대한다. <광주시 시민소통과장>

세 가지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 건강에 좋다 하면 무엇이든 지 값을 따지지 않고 구하여 먹는다. 가정경제에 꽤 많은 부분이 건강관리 쪽에 비중을 둔다고 본다.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한 것은 별개문제다.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오래 살려고 좋은 것 먹고 운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는 날 동안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한다. 나는 항상 생명의 주인 되신 분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내 생전에 중풍과 치매, 암은 걸리지 않게 해 달라고. 내가 믿는 창조주는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 줄로 알고 하룻기에 나는 믿는다. 두고 보시라고. 나는 분명 이런 질병으로는 염려를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우리 몸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로 되어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 그러려면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간의 생사회복과 인류의 흥망성쇠

지 관리할 수 있다.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 영혼이 떠난 몸은 시체다. 함부로 몸을 쓰면 안 된다. 최고의 건강관리법은 예텐동산의 삶의 방법이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신에는 생기가 있고 나무들이 있다. 좋은 공기과 있고 맑은 물이 흐른다. 각종 씨 맺는 열매들이 있고 나무들이 살기 위해 저마다 품어내는 독특한 물질이 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치존피드다. 왜 많은 사람이 산을 찾아가는가? 거기 우리 몸이 필요한 건강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식과 생식, 균형식과 제철식이다. 몸도 정신도 다 건강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이 건강해야 한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요?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1등주의 사회'가 양극화·범죄·자살 부추겨

우리나라는 1등에 목말라 하는 아주 독특한 사회다. 1등을 최고로 우대하고, 1등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혜택이 너무 크다. 1등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1등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룬 원동력이 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99%의 패자뿐 아니라 1%의 승자에게도 이런 구조는 옳지 못하다. 이 같은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나라의 자살률

증가다. 1등 혹은 그 상위그룹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자괴감에 빠져든다. 그리고 상위그룹과 비교하며 자신이 한없이 열등하다고 느낀다.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거나 우울증으로 번지고 최종적으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 승자만이 독식하는 사회의 문화적 구조를 다시 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민규·목표시 수강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